

| | | | |
|---|--------------------------------------|-----|----------|
|  | 일본 (도쿄)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 작성팀 | 마케팅지원팀 |
| | | 담당자 | 성용찬 소장 |
| | | 일시 | 2024. 9. |

CEPA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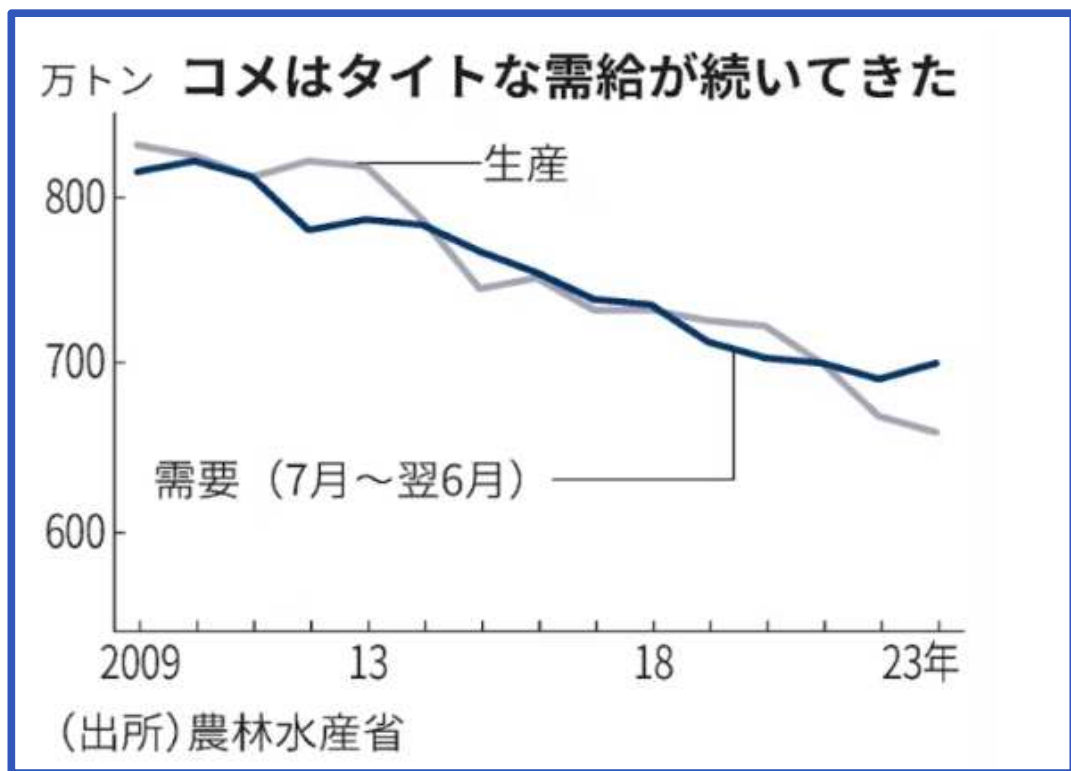
《 쌀 시장 관련 현황 》

- ① "쌀 소동" 농업정책변화 임박, 8월 구매량 1.5배 늘고 가격은 40% ↑
- ② 치솟는 쌀 가격에 따른 쌀 과자 가격 인상과 수입 쌀로 전환

① "쌀 소동" 농업정책변화 임박, 8월 구매량 1.5배 늘고 가격은 40% ↑

- 8월에는 슈퍼마켓 및 기타 소매점에서 구매한 쌀과 포장된 쌀의 양이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공급 부족을 우려한 많은 소비자들이 서둘러 제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혼란의 이면에는 공급을 줄이고 쌀 가격을 올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낡은 농업 정책 탓으로 검토 필요.
- 전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 정보를 수집하는 닛케이 POS(Point of Sale Management)를 분석함. 찰쌀과 포장 쌀의 구매량을 살펴보면 2023년 평균에 비해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40-50% 증가함.
- 8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경보(대지진 경보)가 발령되어 태풍이 발생했을 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시작함. 수도권과 긴키지역(일본 본섬 중서부 지역)을 보면, 8월 첫째 주에 비해 둘째 주에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가능성도 있음.
- 시장에 출시되는 쌀의 양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극심한 더위 때문으로, 쌀알의 탁함과 같은 고온 교란이 발생함.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래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을 것이며, 전국 쌀 면적에서 고온 저항성 품종의 비율은 23년 후에도 14.7%는 유지될 것임.
- 현물구매에 의존하는 일부 약국과 슈퍼마켓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점에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은 다른 대량 소매점으로 옮겨서, 상점의 상품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 2024년 6월 말 기준 민간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56만t으로 1999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음.

- 닛케이 나우캐스트 일일 물가 지수에 따르면 찹쌀을 중심으로 한 곡물 가격은 8월 28일 전년 동기 대비 40%를 넘어섰으며, 이는 217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임.
- 2024년 신생 쌀 가격도 높음. JA그룹(일본농업협동조합)이 주요 생산지인 니가타와 홋카이도의 농가에 지급하는 추정치는 전년도에 비해 20-40% 증가함. 쌀 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소비자들이 쌀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속화할 것임. 수요 감소는 생산억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일본의 식량 공급의 기반이 약화가 우려됨.
- 반복되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지금도 일본의 쌀 정책은 쌀 가격 안정과 생산량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FY24에서는 쌀 농가가 밀, 대두, 사료용 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지원사업으로 약 3,000억 엔의 예산이 배정됨.



(표 제목) 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빠듯(출처 : 농림수산물성)

1. (단어번역) 生産 : 생산 / 需要 : 수요 2. (그래프 설명) 가로축 : 년도 / 세로축 : 톤수

- 쌀을 경작할 의향이 있는 농업 인력의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됨. 농림수산성의 분석에 따르면 농장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쌀 생산 비용은 0.5-1.0 헥타르에 60kg당 20,000엔 이상이지만, 15-20 헥타르에 10,000엔 이상으로 절반으로 줄어듦.

- 쌀에 대한 국내 수요는 지난 10년 동안 10% 감소했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FY24 상반기(1월-6월)에 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함. 이 시기의 매장 상품 부족 현상은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바운드(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쌀 부족 현상은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쌀을 구할 수 있는 9월과 10월에는 멈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성적인 공급 부진이 계속된다면 내년 여름에 다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쌀을 둘러싼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음.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9. 2.)

② 치솟는 쌀 가격에 따른 쌀 과자 가격 인상과 수입 쌀로 대체

- 쌀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쌀 과자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원료인 쌀의 조달을 재검토하고 있음. 쌀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알맹이가 작은 특정 미곡(싸라기)의 양은 2023년 기록적인 고온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으며, 수급이 뿔뿔해지고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쌀 과자 회사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 인상이 적은 수입 쌀의 사용을 늘리는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해당 곡물은 일반 주식에 사용되는 것보다 작으며 쌀 과자와 된장의 원료로 사용되며, 벼 수확량의 약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함. 해당 과자 원료 미곡의 가격 폭이 크고, 뚜렷한 도매 통계는 없지만, "일부 쌀의 가격이 한동안 주식인 쌀의 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올랐다"(전국 쌀 곡물 산업 협동조합).
- 그 이유 중 하나는 2023년 생산량이 적다는 것임.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FY23 생산량은 32만톤으로 FY22 생산량보다 37%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2023년도 기록적인 고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듦.
- 또 주식용 쌀 가격이 치솟으면서 "해당 과자 원료 미곡 중 알맹이가 상대적으로 큰 '중미'를 주식 쌀과 배합해 사용하는 식당 운영자가 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함.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더욱 뿔뿔해진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쌀 과자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입 쌀에서 국내 쌀로 전환하고 있었으나, 해당 원료 미곡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최근에는 역회전이 일어나고 있음.
- 가메다 제과의 원료 쌀은 지난 2-3년 동안 국산이 많았지만, 최근 수입 쌀의 비율이 역전하고 있음. 구체적인 매입 대가의 비율이나 증가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엔화의 절하로 여전히 높은 수입 쌀에 비해 "국내 쌀의 증가율이 크다"는 이유로 수입 쌀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코 세이카도 상품의 안정적인 배송을 위해 "연초부터 수입 쌀 수를 늘리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수입 쌀 조달 증가도 수치에 반영되어, 정부 관리 최소 접근권(MA) 쌀 중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쌀 과자를 포함한 원료 가공품이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6월에만 1만 4,235톤으로 2.3배 증가를 보임.
- 가격도 인상되어, 지난 4월에는 산코 제과가 약 20%의 제품 가격을 약 8% 인상했고, 에치고 제과(니가타현 나가오카시)도 자사의 '맛의 추구' 시리즈 23개 제품의 가격을 8월보다 약 4%에서 11%로 인상함. 가메다 제과는 10월 1일부터 '해피턴'과 '소프트 샐러드' 등 17개 상품의 가격을 9%에서 22%까지 인상함.
- 해당 미곡 대신 주식 쌀에 해당하는 국산 쌀을 사용하는 이와쓰카 제과점도 9월에 9개 제품의 가격을 4~15% 인상함.
-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쌀과자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6%에 달함. 2024년산 쌀은 2023년산 쌀보다 고온 피해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미곡을 포함한 쌀 가격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 한때 슈퍼나 약국에서 특별 판매의 상징이었던 쌀과자에 대한 인상도 바뀌고 있음.

